

‘전효숙 인준’ 처리 또 무산

“與野 두달간 정치공방만” 비난 고조

15일로 예정됐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헌법기관의 장기 공백상태를 야기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투표라는 적법 절차를 두고 단상 접거라는 물리적 폭거에만 매달린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 후보자 인준 반대를 결정한 데 대한 비난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거나 청와대가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데다 소수 야당들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상황이어서 표결 처리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을 떠나지 말도록 요청하는 한편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민노당 등 소수 야당들과의 물밑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국회 본회의에서 휴회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언제든 열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헌법재판관 임명

한나라 본회의장 점거로 우리당 입장 못해

민주당 지역민 목소리 외면한 채 임명 반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김호석 원내대표,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민노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연합뉴스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적법절차에 따라 즉시 표결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소수 야당들은 한나라당에는 투표

참여를 종용하는 한편, 열린우리당에는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잇따라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으며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사태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전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무산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투표 참여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반대, 결국 전 후보자 인준안 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한-민 공조’의 형태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한, 전 후보자의 인준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에 대해 지역 여론은 강한 반발 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임명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그렇다고 치자”며 “그러나 투표 참여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장 직권 상정마저 반대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전 후보자 국회 인준 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2~3월까지 신당 창당돼야”

유선호 우리당 도당위원장

‘통합신당파’인 유선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은 15일 “대통령선거 일정상 내년 2~3월까지 통합신당이 창당돼야 한다”며 정계개편 논의의 ‘촉박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조선훈 초청으로 가진 ‘오늘의 한국정치와 과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정계개편과 관련 “대선 후보 결정의 ‘데드라인’을 7월 말로 잡았을 때 늦어도 2~3월까지 신당이 창당돼야 4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준비와 5~7월 전국 순회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최근 의회에서 정계개편에 대해 ‘정국국회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창당하는데도 최소한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일정에 쫓기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신당 논의를 위한 수임기구로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건 진영, 국민중심당 등이 참여하는 4자 원탁 회의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되는 창당의 원칙에 입각해 그 일정이 제정과에 전달되고 조질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지역 與의원 정계개편 관련

당 지도부와 연쇄 회동 관심

광주와 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당 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선, 전남지역 의원들은 15일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여의도에서 만난 회동을 갖는다.

이날 유선호, 우윤근, 김성곤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들은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민주세력 대통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지역 민심도 통합신당 불가피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의원들도 오는 20일 비대위들과 회동을 나눈다. 광주지역 의원들도 이날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한 의견과 지역 민심을 비대위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1사단장 역임... 전남 출신 ‘나홀로’ 대장 진급

백군기 3군사령관



전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이번 인사에서 대장에 올랐다. 고향인 광주에서 31사단장을 하면서 주민들과 근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노력해왔다.

은화한 성품에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매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해 지장, 덕장, 용장의 면모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특전사령관 시절 미군들로부터 ‘Silver Fox’(영민한 사냥)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가족으로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장성(56) ▲광주교 ▲육사 29기 ▲1공수여단장 ▲육사 생도대장 ▲31사단장 ▲육군대학 총장 ▲특전사령관 ▲육군본부 감찰감 ▲육군 인사사령관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15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또 다시 무산되자 전 후보자의 고향인 순천을 지역구로 한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고군분투했던 서 의원은 “한나라당 황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헌법기관의 공백 장기화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왜 판죽거는지...”

서갑원의원, ‘전효숙 반대’에 섭섭함 드러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의 직후, 의장석을 점거하고 ‘전 후보자 인준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던 서 의원은 “한나라당은 그

렇다 하고 민주당은 왜 국회 표결 참여를 미루며 판죽을 거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회 점거를 통해 결국 헌법재

판소장의 임명을 막아 상처를 내고 이제 상처를 입었으니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침묵한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던 전 후보자를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짓밟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헌법기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지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최후까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legal services with the headline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이제 전문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오!' and listing various lawyers and their specialties.

Advertisement for '현대직업전문학교' (Modern Vocational College) listing various courses like '주책관리사', '정보회계초-1', and '사무자동화'.

Advertisement for '공무원 쉬운것!' (Public Service is Easy!) listing various public service jobs like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and '소방공무원'.

Advertisement for '한빛공무원학원' (Hanbit Public Service Academy) for the 2007 civil service exam, listing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결혼정보모모' (Wedding Information Momo) featuring photos of couples and text about finding partners through a professional service.